

고등학교, 학점 못 따면 졸업 못한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2025년 신입생 192점 이수해야 졸업

오는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현 초등학교 6학년)은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해진다.

학교의 수업·학사운영도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되며, 학업성취율과 과목출석률에 따라 졸업이 결정된다. 현행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도(고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하되 국영수와 같은 통합과목은 석차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도 구리시 갈매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종합계획 수립을 검토하기 시작한 지 2년여만이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에 우선 도입하고 일반계고에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2025년에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학점제 내에서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은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되고, 학습량 적정화와 학사 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졸업기준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학생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한다. 그간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 I(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의 심화 과목)을 보통교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학사 운영은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나,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학업성취율은 A, B, C, D, E, I 등으로 나뉘게 되며 학업성취율 40% 미만인 'I'의 경우 미이수 처리를 받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별도 과제 수행, 보충 과정 제공)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해,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학점제 도입에 맞춰 석차등급 중심의 현행 내신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2019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도(고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해, 학생들이 학업 성취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역시 도울 예정이다.

이는, 석차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 수 등에 따라 내신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수강을 기피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이 왜곡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추진계획



	2021	2022	2023	2024	2025년
학점제 도입	마이스터고 ('20~)	특성화고 도입, 일반계고 제도 부분 도입			전체 고교 전면 적용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 발표	2022 교육과정 개정 고시			2022 교육과정 적용(고1~)
평가제도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전 학년 적용	성취평가제 안착 기반 마련 (모니터링 체제 구축, 교원의 평가 전문성 제고)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 (고1~)
연구·선도학교 확대	일반계고(1680교)				모든 일반계고 및 직업계고 연구·선도학교 운영 경험 축적
	과학교(20개교)				
	외고·국제고·자사고(76개교) 중 일반고 전환(예정) 학교				
	직업계고(520개교)				
		특수학교(2개교 이상)			
학점제형 공간조성	233개교	549개교	567개교		학교공간 조성 연차적 지원 (시도별 추진계획에 근거, 추후 변경 가능)
교·강사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2022, 1600여 명) 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지속 추진 학점제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 마련(~2022년)				

학업성취율에 따른 성취등급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90% 미만	B
70% 이상~80% 미만	C
60% 이상~70% 미만	D
60% 미만 E	40% 이상~60% 미만 E
	40% 미만 I
현행	향후 (2025년 이후)

자료: 교육부

내신성적 산출방식 변화 (보통교과)

현행 (2019년 이후)		향후 (2025년 이후)	
교과	성적 산출	교과	성적 산출
공통과목	성취도 (A,B,C,D,E)	공통과목	성취도 (A,B,C,D,E)
일반선택과목	석차등급 병기	일반선택과목	석차등급 병기
진로선택과목	성취도 (A,B,C) 표기	선택과목 (일반/융합/진로)	성취도 (A,B,C,D,E) 표기

※ '체육·예술'은 성취도 3단계 외 모두 미산출.
'교양'은 P(이수) 외 모두 미산출(현행 방식 유지)

NEWSIS

21.02.17 전진우 그래픽 기자 6181ue@newsis.com

교육부는 2024년까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대학입시와 교원과 학교 공간, 공동교육과정 등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학제에 맞는 방식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입시 방향도 새로 수립할 계획이다. 관련 논의를 올해부터 착수한다.

유 부총리는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등학교=대입 준비' 공식이 깨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지금까지 고교 진학은 곧 대입이 목표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고3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 창업, 다양한 경험을 한 뒤 나중에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다"며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진로가 가능하도록 열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절대평가 도입을 통해 수능이나 논술, 면접 등 다른 요소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학생들이 이수한 선택과목 자체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의 심화과목을 듣거나 원하는 영역의 수업을 듣기 때문에 (대학은) 진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훨씬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변별력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현장 대입 담당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